

# 김용현, 이틀전부터 “北 도발 임박하니 간부급 대기하라”

〈전 국방장관〉

1일 방첩사에 지시...3일엔 정보사에 선관위 있는 ‘과천 대기’ 하달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김용현과 3일 오후 4시 돌이 현안 토의

### 속속 드러나는 준비 상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각급 부대와 관련 인물에게 은밀히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계엄을 준비한 모습이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계엄 준비 상황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군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 참모장은 ‘12월 1일 여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받기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전에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차·실장들은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이 군이 ‘도발’로 규정하는 무력시위는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는데 북한과 풍선을 이유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총알고 고교 후배로 계엄 사태 관여 의혹을 받는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문상호 정보사

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특히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공개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당 주가 아닌 당일 야간에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왔고, 이때는 ‘과천 정부 청사 인근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왔다고 한다.

그는 또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CC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돌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께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돌이 만났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당일 육군 사관학교 교장 이취직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오후 4시 토의 이후 박 총장에게 ‘21시 40분에 (국방부·합참 청사의)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약 1시간 뒤 계엄이 선포되고 박 총장은 같은 건물 지하의 합참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하자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침통’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군 장성들이 계엄 당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박선원 “계엄 2일차에 공수여단 동원 계획”

“7·13 공수에 파견 준비 명령  
최소한 올 3월부터 계엄 준비  
정치인 체포 지시 부인 거짓말”

‘12·3 비상계엄’ 2일 차 계획으로 추가 공수여단 동원 등이 준비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

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결정되는 바람에 이들이 출동을 안 하게 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 공안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회동한 것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올 3월부터는 계엄 준비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통과까지 지켜본 인물로, 국무위원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괜히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내일 표결

野 “박성재 장관, 내란 전방위 관여... 조지호 청장, 의원 국회 출입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겠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박 장관)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

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내란 행위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尹 포함 내란혐의 8명 체포 결의안 채택

與 조경태·김상욱 등 찬성 4·기권 3... 대부분 친한계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원)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

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광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